

2장 격국론I

官印逢傷 格之敗也 然辛生戊戌月 年丙時壬 壬不能越戊剋丙 而反能洩身為秀 是因敗得成矣
煞刃逢食 格之敗也 然庚生酉月 年丙月丁 時上逢壬 則食神合官留煞
而官煞不雜 煞刃局清 是因敗得成矣

관인격이 상관을 보면 파격이 된다.

그러나 무술월의 신금이 년에 병화 시에 임수가 있으면, 임수 상관이 병화를 극하지 못한다.
반대로 일간을 설기하는 역할을 하니 파격인 줄 알았으나 성격이 되는 경우이다.

칠살과 양인이 함께 있는 경우 식상을 보면 파격이 된다.

하지만 유월 경금이 병화와 정화가 천간에 있을 때 임수가 투하여 정임합으로 살을 남기면
관살이 잡스럽지 않으니 살인격이 청하게 된다.

〈子平眞詮〉 論用神配氣候得失

論命惟以月令用神為主 然亦須配氣候而互參之
譬如英雄豪傑 生得其時 自然事半功倍 遭時不順 雖有奇才 成功不易

사주는 월령을 위주로 통변해야 하는 건 맞지만
기후를 참고하여 배합을 해야만 한다.

비유컨대 영웅호걸이 때를 만나면 절반의 노력으로도 곱절의 능력을 발휘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이한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것과 같다.

是以印綬遇官 此謂官印雙全 無人不貴
而冬木逢水 雖透官星 亦難必貴 蓋金寒而水益凍 凍水不能生木 其理然也
身印兩旺 透食則貴 凡印格皆然
而用之冬木 尤為秀氣 以冬木逢火 不惟可以洩身 而即可以調候也

인수격이 관이 있으면 관인쌍전이라 하여 귀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겨울 목이 인수격이 되고 금 정관이 투출했다고 해도 꼭 귀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겨울의 금은 수를 얼리고 얼은 물이 목을 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는 食神이 透하면 貴하게 된다.
대부분의 印綬格이 그렇지만 冬木은 특히 秀氣가 빼어나니,
이는 冬木이 불을 만나 洩氣할 뿐만 아니라 기후를 적합해지기 때문이다.

傷官見官 為禍百端 而金水見之 反為秀氣

非官之不畏夫傷 而調候為急 權而用之也 傷官帶煞 隨時可用 而用之冬金 其秀百倍
傷官佩印 隨時可用 而用之夏木 其秀百倍 火濟水 水濟火也

상관견관은 재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금수상관은 도리어 정관이 있어야 빼어나다.

관성이 상하는 것이 두렵지 않으니 조후가 훨씬 급하기 때문이다.

상관대살로 수시로 쓸 수 있으니 겨울의 금은 화가 있어 백 배로 빼어나게 된다.
상관패인으로 수시로 쓸 수 있으니 여름의 목은 수가 있어 백 배로 빼어나게 된다.

화는 수를 조절하고 수는 화를 조절한다.

傷官用財 即為秀氣 而用之夏木 貴而不甚秀 燥土不甚靈秀也

春木逢火 則為木為通明 而夏木不作此論 秋金遇水 則為金水相涵 而冬金不作此論
氣有衰旺 取用不同也 春木逢火 木火通明 不利見官 而秋金遇水 金水相涵 見官無礙

상관용재라 하면 바로 귀격인데 여름 목은 귀하더라도 빼어나기가 어렵다.
마른 토라 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봄목이 화가 있으면 목화통명이라 한다.
하지만 여름 목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가을 금이 수가 있으면 금수상함이라 한다.

하지만 겨울 금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기에는 쇠왕의 흐름이 있으므로 취용함에 있어 동일하지가 않다.

봄목이 화를 보면 목화통명이라 하고 관을 보면 좋지 않다.

하지만 가을 금이 수를 통해 금수상함을 짜면 관성이 있어도 구애받지 않는다.

假如庚生申月 而支中或子或辰 會成水局 天乾透丁 以為官星

只要壬癸不透露干頭 便為貴格 與食神傷官喜見官之說同論 亦調候之道也

食神雖逢正印 亦謂奪食 而夏木火盛 輕用之亦秀而貴 與木火傷官喜見水同論 亦調候之謂也

가령 신월 경금이 지지에 신자진 수국을 짜고 천간에 정화로 관성이 뜬다고 하더라도
임계수가 투하여 관성을 때리지만 앓는다면 귀격으로 논한다.

앞서 식신이나 상관이 건관해도 좋다는 이론과도 동일하다.

모두가 조후의 이치 때문이다.

식신이 인수를 보면 도식이라고 하는데 여름에 화가 성하면 인수가 가볍게 투해야 귀하다.

목화상관이 수를 좋아한다는 이론과도 동일하다.

이런 것을 조후라 일컫는다.

〈子平眞詮〉 論相神緊要

月令既得用神 則別位亦必有相 若君之有相 輔者是也

如官逢財生 則官為用 財為相 財旺生官 則財為用 官為相 煞逢食制 則煞為用 食為相

월령으로부터 격이 정해지면 상신이라는 것도 있다.

상신이란 임금을 보좌하는 것이다.

정관격이 재성으로 성격됨에 있어 정관이 격이라면 재성은 상신이 된다.

재격이 정관으로 성격되면 재성이 격이라면 정관이 상신이 된다.

칠살을 식신으로 제하고 있는 경우, 칠살이 격이라면 식신이 상신이다.

然此乃一定之法 非通變之妙 要而言之 凡全局之格 賴此一字而成者 均謂之相也

傷用神甚於傷身 傷相甚於傷用

如甲用酉官 透丁逢壬 則合傷存官以成格者 全賴壬之相

그러나 이처럼 일정한 법수로 논하기는 어렵고 통변의 묘를 살려야 한다.
요컨대, 사주 전체는 글자 하나에 의해 성격이 되는데 이를 상신이라 한다.

격이 다치면 몸이 다치고, 상신이 다치면 격이 다친다.

유월 갑목이 정화와 임수가 동시에 투하면,
임수 인성이 정화 상관을 함으로 잡아주므로 성격된다.

이때 전적으로 임수 상신의 공이 크다.

戊用子財 透甲並己 則合煞存財以成格者 全賴己之相 乙用酉煞 年丁月癸
時上逢戊 則合去癸印以使丁得制煞者 全賴戊之相

자월 무토가 정재격이 되는데, 갑목 칠살과 기토 겁재가 투했다고 하자.
재격은 칠살을 보면 파격인데, 기토가 칠살을 합으로 잡아주므로 성격된다.

이때 전적으로 기토 상신에 의지한다. 유월 을목은 칠살격이 된다.

천간에 정화 식신과 계수 인성이 동시에 투하면 계수가 식신을 힘을 못 쓰도록 극을 한다.

이때 무토가 나타나 계수를 합하면 식신으로 하여금 제살의 공로를 베풀게 하니
전적으로 무토 상신에 의지한다.

癸生亥月 透丙為財 財逢月劫 而卯未來會 則化水為木而轉劫以生財者 全賴於卯未之相
庚生申月 透癸洩氣 不通月令而金氣不甚靈 子辰會局
則化金為水而成金水相涵者 全賴於子辰之相

해월 계수가 병화가 투하면 월겁격이 재성을 만난 건이다.
이때 묘목과 미토가 월지를 끼고 합을 하면 수가 목으로 변하여 식상이 되니 재성을 생하게 된다.
전적으로 묘목과 미토 상신에 의지한다.
신월 경금이 계수로 설기하면,
계수가 월령에 통하지 않았으므로 금을 제대로 설기하지 못한다.
이때 자수와 진토가 월지 신금을 끼면 금이 수로 변하여 금수상함으로 설기가 아름답다.
전적으로 자수와 진토 상신에 의지한다.

相神無破 貴格已成 相神相傷 立敗其格

如甲用酉官 透丁逢癸印 制傷以護官矣 而又逢戊 癸合戊而不制丁 癸水之相傷矣

상신이 파손되지 않으면 귀격이고 이미 성격된 것이며,
상신이 파손되면 파격이다.

유월 갑목 정관격이 정화와 계수가 투하면 계수가 정화를 극하여 관성을 보호하는데,
이때 무토가 나타나 계수를 합하면 정화 상관을 극하지 못하니 계수 상신이 손상된다.

丁用酉財 透癸逢己 食制煞以生財矣 而又透甲 己合甲而不制癸 己土之相傷矣
是皆有情而化無情 有用而成無用之格也

유월 정화는 재격이다. 재격은 칠살을 보면 파격이 된다.

계수와 기토가 모두 투하면 기토가 계수 칠살을 잡고 재성을 생한다.

이때 갑목이 나타나 기토를 합하면 기토가 계수를 잡지 못하니 기토 상신이 손상된다.

이에 유정한 것이 무정해지기도 하고, 유용한 것이 무용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凡八字排定 必有一種議論 一種作用 一種棄取
隨地換形 難以虛擬 學命者其可忽諸

팔자가 배정되면 반드시 의미 있는 글자가 하나 있게 되는데,
어떤 글자는 좋은 역할을 하는데 어떤 글자는 사주를 버려놓는다.
그러나 이리저리 왔다갔다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명을 논하려는 자가 어찌 이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子平眞詮〉 論雜氣如何取用

四墓者 沖氣也 何以謂之雜氣 以其所藏者多 用神不一 故謂之雜氣也
如辰本藏戊 而又爲水庫 爲乙餘氣 三者俱有 於何取用 然而甚易也
透干會支取其清者用之 雜而不雜也

사묘고 辰戌丑未는 충기인데 어찌하여 잡기라고 하는가.
지장간이 많아서 용신이 하나가 아니므로 잡기라고 하는 것이다.
가령 辰土는 본기에 戊土를 저장하고 또 水의 창고이며 乙木 여기에도 있다.
세 개를 갖추고 있으니 어떤 것을 용신으로 삼겠는가.
그러나 매우 쉬운데 투간한 것과 회를 이룬 것 중에 청한 것이 용신이다.
그래서 잡기이지만 잡하지 않게 된다.

2장 격국론I

何謂透干 如甲生辰月 透戊則用偏財 透癸則用正印 透乙則用月劫是也 何謂會支
如甲生辰月 逢申與子會局 如甲生辰月 逢申與子會局 則用水印是也 一透則一用
兼透則兼用 透而又會 則透與會並用 其合而有情者吉 其合而無情者則不吉

무엇을 투간이라 하는가. 甲木이 辰月에 태어나 戊土가 투간하면 편재가 용신이 된다.

癸水가 투간하면 정인이 용신이고 乙木이 투간하면 월겁재가 용신이 된다.

무엇을 지지의 회합이라 하는가.

甲木이 진월에 태어나 申子가 국을 이루면 水 인성을 용신으로 삼는다.

하나가 투출하면 용신은 하나이고 겹하여 투출하면 모두 용신으로 겸한다.

투출하고 회합하면 투출한 것과 회합한 것을 병용하고

그리하여 그 배합이 유정하면 길하고 배합이 무정하면 길하지 못하게 된다.

2장 격국론I

何謂有情 順而相成者是也 如甲生辰月 透癸爲印 而又會子會申以成局 印綬之格 清而不雜 是透干與會支合而有情也 又如丙生辰月 透癸爲官 而又逢乙以爲印 官與印相生 而印又能去辰中暗土以清官 是兩干並透合而情也 又如甲生丑月 辛透爲官 或巳酉會成金局 而又透己財以生官 是兩干並透 與會支合而有情也

무엇을 유정하다고 하는가. 순하고 상성하는 것이다.

가령 甲木이 辰月에 태어나고 癸水가 투간하면 인격이다.

그런데 지지에서 또 申子가 수국을 이루었다면 인수격이 되어 청하고 잡하지 않게 된다.

이러면 투간한 것과 지지에 국을 이룬 것이 합하여 유정한 것이다.

丙火가 辰月에 태어나 癸水가 투간하면 정관격이고 또 乙木이 있으면 인수인데 정관과 인수가 상생하며 인수는 또 辰 속의 숨은 土를 제거하여 정관을 맑게 해 준다. 이런 경우 두 천간이 나란히 투간하여 합당하게 되니 유정한 것이다.

또 甲木이 丑月에 태어나 辛金이 투출하면 정관격인데 혹 巳酉 金局을 이루고

또 己土 재성이 투출하여 정관을 생조하면 두 개의 천간이 나란히 투출하여 지지의 회합과 유정한 것이다.

2장 격국론I

何謂無情 逆而相背者是也 如壬生未月 透己爲官 而地支會亥卯以成傷官之局 是透官與會支 合而無情者也
又如甲生辰月 透戊爲財 又或透壬癸以爲印 透癸則戊癸作合 財印兩失 透壬則財印兩傷 又以貪財壞印 是兩干並透
合而無情也 又如甲生戌月 透辛爲官 而又透丁以傷官 月支又會寅會午以成傷官之局 是兩干並透 與會支合而無情也

무엇을 무정하다 하는가. 거역하고 서로 배반하는 것이다.

가령 壬水가 未月에 태어나고 己土가 투간하면 정관격이다. 그러나 지지에 亥卯가 회합하면 상관의 국이 된다.

이렇게 되면 투간한 정관과 지지의 회합은 서로 무정하게 된다.

또 甲木이 辰月에 태어나고 戊土가 투간하면 재격이다.

또 壬癸가 투간하면 인성이 되는데 癸水가 투간하면 戊癸합이 되므로 재성과 인성 둘 다 잃게 되고

壬水가 투간하여도 재와 인이 둘 다 상하므로 탐재괴인이 된다.

이것은 두 개의 천간이 나란히 투간하여 서로 무정한 것이다. 甲木이 戌月에 태어나 辛金이 투간하면 정관격이 된다.

그러나 丁火 상관이 투간하고 월지에 또 寅午가 회합하면 상관의 국이 되므로

이는 두 개의 천간이 나란히 투출하거나 또 지지 회합과 무정한 것이다.

2장 격국론I

又有有情而卒成無情者何也 如甲生辰月 逢壬爲印 而又逢丙 印綬本喜洩身爲秀 似成格矣 而火能生土 似又助辰中之戊 印格不清 是必壬干透而支又會申會子 則透丙亦無所礙 又有甲生辰月 透壬爲印 雖不露丙而支逢戌位 戌與辰沖 二者爲朋沖而土動 干頭之壬難通月令 印格不成 是皆有情而卒無情 富而不貴者也

또 유정한 것이 바뀌어 무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것인가.

甲木이 辰月에 태어나고 壬水가 투간하면 인격이 된다.

그러나 丙火가 있으면 일간의 기운을 설하여 빼어나게 되어 인수가 반기므로 마치 성격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火는 土를 생하는데 辰土 속의 戌土를 도와서 인격이 청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壬水가 천간에 투하고 지지에서 또 申子가 水局을 이루어야 투출한 丙火가 장애를 주지 못하게 된다.

또 甲木이 辰月에 태어나고 壬水가 투간하면 인격이다.

비록 丙火가 없어도 지지에 戌土가 있어서 辰戌沖이 되면 둘이 붕충이 되어 土가 동하므로

천간에 壬水가 월령에 통근하기 어려워 인격은 성격되지 못한다.

이 모두는 유정함이 변하여 무정하게 된 것으로 부자는 되어도 귀하지 못하다.

2장 격국론I

又有無情而終有情者何也 如癸生辰月 透戊爲官 又有會申會子以成水局 透干與會支相剋矣
然所剋者乃是劫財 譬如月劫用官 何傷之有 又如丙生辰月 透戊爲食 而又透壬爲殺 是兩干並透
而相剋也 然所剋者乃是偏官 譬如食神帶殺 殺逢食制 二者皆是美格 其局愈貴 是皆無情而終爲有情也

또 무정한 것이 마침내 유정하게 변하니 어떤 것인가.

癸水가 辰月에 태어나고 戊土가 투간하면 정관격이다.

또 申子가 회합하여 水局을 이루고 있으면 투간한 것과 지지 회합은 상극이 된다.

그러나 극을 받는 것은 겁재이니 비유하자면 월겁격에 정관이 있어 이것을 손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 丙火가 辰月에 태어나고 戊土가 투간하면 식신격이다.

그러나 또 壬水가 투간하면 칠살인데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투간하면 서로 상극이 된다.

그러나 극을 받는 것은 편관이니 비유하자면 식신대살로 칠살이 식신의 극제를 만난 것과 같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좋은 격국이며 더욱 귀격이 된다. 이는 모두 무정한 것이 마침내 유정하게 된 것이다.

〈子平眞詮〉 論墓庫刑沖之說

辰戌丑未 最喜刑沖 財官入庫不沖不發 此說雖俗書盛稱之 然子平先生造命 無是說也
夫雜氣透干會支 豈不甚美 又何勞刑沖乎 假如甲生辰月 戊土透豈非偏財 申子會豈非印綬
若戊土不透 則辰戌相沖 財格猶不甚也 至於透壬爲印 辰戌相沖 將以累印 謂之沖開印庫可乎

辰戌丑未는 형충을 가장 기뻐하는데 재성과 관성이 입고되면 충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말들은 속서에 무수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자평선생이 명리이론을 만들 때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무릇 잡기가 천간에 투간하고 지지에서 회합하면 어찌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또 어찌 형충 되기를 힘쓰겠는가.
가령 甲木이 辰月에 태어나고 戊土가 투출하면 어찌 편재가 아니겠는가.
申子가 회합하면 어찌 인수가 아니겠는가.
만약 戊土가 투출하지 않고 辰戌이 충을 한다면 재격은 오히려 매우 맑지 못하게 된다.
심지어 壬水인 인수가 투출하면 인격이 되는데 辰戌이 충하면
이로써 인수에게 해가 되는데도 충하여 인수의 창고를 열어야 한다면 옳겠는가.

況四庫之中 雖五行俱有 而終以土爲主 土沖則靈 金木水火 豈能以四庫之沖而動乎
故財官屬土 沖則庫啓 如甲用戊財而辰戌沖 壬用己官而丑未沖之類是也

然終以戊己干頭爲清用 干既透 則不沖而亦得也

하물며 사고의 속에는 오행이 모두 있지만 결국은 토를 위주로 하게 된다.

土는 충을 하면 영험하겠지만 그러나 金木水火는 어찌 사고의 충으로 멀쩡하게 발동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재관이 토에 속할 경우 충으로 창고를 열수 있는 것은 가령 甲木이 戊土 재성이 용신인데
辰戌沖이 되는 것과 壬水가 己土 정관이 용신인데 丑未沖이 되는 것 등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결국엔 戊己가 투간하여도 청해야 쓰는 것이고
천간에 투출하였으면 충하지 않아도 또한 쓸 수가 있는 것이다.

2장 격국론I

至於財官爲水 沖則反累 如己生辰月 壬透爲財 丁生辰月 透壬爲官 戌沖則傷官 豈能無害
其可謂之逢沖而壬水之財庫官庫開乎 今人不知此理 甚有以出庫爲投庫 如丁生辰月
壬官透干 不以爲庫內之壬 干頭透出 而反爲干頭之壬 逢辰入庫 求戌以沖土 不顧其官之傷

심지어 재관이 水라면 충으로 오히려 해를 입게 된다.

가령 己土가 辰月에 태어나 壬水가 투출하면 재격인데 戌이 와서 충을 할 경우 겁재가 동하는데 어찌 이로움이 있겠는가.

丁火가 辰月에 태어나 壬水가 투간하면 정관격인데 戌이 충하면 정관이 손상되는데 어찌 해가 없다 하겠는가.

그러니 충으로 壬水의 재고와 관고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어찌 옳다 하겠는가.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고 심지어 출고를 투고라 한다.

가령 丁火가 辰月에 태어나 壬水 정관이 투간하면 창고 속의 壬水가 천간에 투출하였다 하지 않고

오히려 천간에 투출한 壬水가 辰土 속에 입고되었으니

戌로써 土를 충하여 구해야 한다고 하니 이는 정관이 손상되는 것은 돌아보지 못한 것이다.

更有可笑者 月令本非四墓 別有用神 年月日時中一帶四墓 便求刑沖
日臨四庫不以爲身坐庫根 而以爲身主入庫 求沖以解 種種謬論 今人掩耳

더욱 가소로운 것은 월령이 본래 사묘가 아니고 따로 용신이 있는데도
연월일시 가운데 하나라도 사묘가 있으면 형충으로 구해야 된다고 하며
일간이 사고에 임하면 일간이 앉은 자리 고에 뿌리가 있다 하지 않고
일간이 입고되었으므로 충으로 해소하여 구해야 된다고 하니
온갖 종류의 잘못된 이론이 많으므로 요즘 사람들은 귀를 막아야 할 것이다.

2장 격국론I

然亦有逢沖而發者何也 如官最忌沖 而癸生辰月 透戊爲官 與戌相沖 不見破格 四庫喜沖
不爲不是 卻不知子午卯酉之類 二者相仇 乃沖剋之沖 而四墓土自爲沖 乃沖動之沖
非沖剋之沖也 然既以土爲官 何害於事乎 是故四墓不忌刑沖 刑沖未必成格 其理甚明 人自不察耳

그러나 충을 만나면 발하는 것도 있으니 어떤 것인가.
가령 정관은 충을 가장 꺼리는데 癸水가 辰月에 태어나고
戊土가 투출하면 정관격인데 戊土와 서로 충을 하여도 파격으로 보지 않는다.
사고가 충을 반기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子午卯酉 등은 두 개가 서로 원수가 되어 이에 충극하는 충을 하지만
그러나 사묘의 土는 스스로의 충이기에 충동하는 충이지 충극하는 충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미 土가 정관이 되었는데 어찌 충이 된다고 해롭다 하겠는가.
그러므로 사묘가 형충을 반드시 꺼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형충이 되어야 성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치가 이리도 분명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살피지 않을 뿐이다.

〈子平眞詮〉 論四吉神能破格 論四凶神能成格

財官印食 四吉神也 然用之不當 亦能破格 如食神帶煞 透財為害 財能破格也
春木火旺 見官則忌 官能破格也 煞逢食制 透印無功 印能破格也
財旺生官 露食則雜 食能破格也 是故官用食破 印用財破

정재·정관·정인·식신은 네 가지 길신이지만 그러나 그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면 또한 격을 깰 수 있다.

예컨대, 식신격이 편관을 두르고 있는 경우에 재성이 투출하면 해가 된다.

봄 목은 화가 왕성하면 관성 보기를 꺼려 하니 관성이 격을 깰 수 있는 것이다.

편관격은 식신을 보면 제압되니 인성이 투출하면 공이 없게 되어 인성이 격을 깰 수 있는 것이다.

정재격이 왕성하여 정관을 생하는 데 식신이 드러나면 잡스러우니 식신이 격을 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관격은 식신을 쓰면 깨어지고, 정인격은 정재를 쓰면 깨어진다.

2장 격국론I

煞傷梟刃 四凶神也 然施之得宜 亦能成格. 如印綬根輕 透煞為助 煞能成格也
財逢比劫 傷官可解 傷能成格也 食神帶煞 靈梟得用 梟能成格也 財逢七煞 刃可解厄 刃能成格也
是故財不忌傷 官不忌梟 煞不忌刃 如治國長搶大戟 本非美具 而施之得宜 可以戡亂

편관·상관·편인·양인은 네 가지 흉신이지만 배합이 적절하면 또한 격을 성립시킬 수 있다.

예컨대 정인격의 뿌리가 가벼운데 편관이 투출하여 도우면 편관이 격을 성립시킬 수 있다.

정재격이 비겁을 만나면 상관으로 풀 수 있으니 상관이 격을 성립시킬 수 있다.

식신격이 편관을 두르고 있는데 편인을 쓰면 편인은 격을 성립시킬 수 있다.

정재격이 편관을 만나면 양인으로 액을 풀 수 있으니 양인이 격을 성립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정재는 상관을 꺼리지 않고, 정관은 편인을 꺼리지 않으며, 편관은 양인을 꺼리지 않는다.

예컨대 나라를 다스리는 데 긴 창과 큰 극은 본래 좋은 도구가 아니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난을 평정할 수 있는 것과 같다.

子平粹言
李虛中命書

명리 고전 하이라이트 강독 II

3강 격국론 II

〈子平眞詮〉 論正官及取運

官以克身 雖與七煞有別 終受彼制 何以切忌刑衝破害 尊之若是乎
豈知人生天地間 必無矯焉自尊之理 雖貴極天子 亦有天祖臨之
正官者分所當尊 如在國有君 在家有親 刑衝破害 以下犯上 烏乎可乎

정관은 본신을 극하고 비록 편관과 다름이 있으나 종내는 그것의 제약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형충파해를 꺼려 하고 정관을 이와 같이 높이는 것인가?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태어나서 스스로를 존귀하게 보는 것을
바로잡는 이치는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만은
비록 귀함이 천자라고 해도 역시 하늘이 임하는 것이다.
정관이 나뉘는 바는 당연히 높은 것으로 마치 나라에 임금의 있고 가정에 부친이 있는 것과 같고
형충파해는 아래에서 위를 범하니 어찌 가당하겠는가?

3강 격국론II

以刑衝破害為忌 則以生之護之為喜矣 存其喜而去其忌則貴 而貴之中又有高低者 何也

以財印並透者論之 兩不相礙 其貴也大 如薛相公命 甲申 壬申 乙巳 戊寅 壬印戊財

以乙隔之 水與土不相礙 故為大貴 若壬戌 丁未 戊申 乙卯 雜氣正官

透幹會支 最為貴格 而壬財丁印 二者相合 仍以孤官無輔論 所以不上七品

형충파해를 꺼리는 것은 정관을 생하고 보호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그 기뻐하는 것을 보존하고 꺼려 하는 것을 제거하면 귀해지지만

그 귀함에도 높고 낮음이 있으니 어떤 것인가?

정재와 정인이 함께 투출한 경우로 논하건대 이 둘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으니 그 귀함이 크다.

예컨대 설상공의 사주는 갑신년 임신월 을사월 무인시 생인데 임수 정인과 무토 정재가 을목으

로 막혀 수와 토가 서로 장애가 되지 않으니 크게 귀하다.

임술년 정미월 무신일 을묘시 생은 잡기정관격이고 천간이 투출하고 지지가 회합하여 가장

귀격이나 임수 정재와 정화 정인이 서로 합하여 '돕는 것이 없는 외로운 정관'으로 논하니

따라서 칠품 이상을 오르지 못했다.

戊 乙 壬 甲
寅 巳 申 申

—————

乙 戊 丁 壬
卯 申 未 戌

3강 격국론II

若財印不以兩用 則單用印不若單用財 以印能護官 亦能洩官 而財生官也
若化官為印而透財 則又為甚秀 大貴之格也 如金狀元命 乙卯 丁亥 丁未
庚戌 此並用財印 無傷官而不雜煞 所謂去其忌而存其喜者也

만약 재성과 인성 둘을 모두 쓰지 않고 한 가지만 써야 하는 경우에는
인성을 쓰는 것이 재성을 쓰는 것보다 못하다.

인성은 관성을 보호할 수 있고 또 관성을 설기시킬 수 있지만
재성은 관성을 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관성이 인성으로 화하고 재성이 투출하면 더욱더 빼어난 대귀한 격이다.

예컨대 김장원의 명조는 을묘년 정해월 정미일 경술시이다.

이 명조는 재성과 인성을 함께 쓰고 상관이 없으며 편관이 섞이지 않았으니
이른바 그 꺼려 하는 것을 없애고 기뻐하는 것이 보존된 것이다.

庚 丁 丁 乙
戌 未 亥 卯

3강 격국론II

然而遇傷在於佩印 混煞貴乎取清

如宣參國命 己卯 辛未 壬寅 辛亥 未中己官透乾用清 支會木局 兩辛解之 是遇傷而佩印也
李參政命 庚寅 乙酉 甲子 戊辰 甲用酉官 庚金混雜 乙以合之 合煞留官 是雜煞而取清也

그러나 정인이 있는데 상관을 만나면 편관이 섞여 있어도 사주가 맑을 수 있다.

선참국의 명조는 기묘년 신미월 임인일 신해시이다.

미토의 지장간 기토 정관이 년간에 투출하고 맑게 쓰이며
지지에서 목국을 이루었으나 두 개의 신금이 이를 해지하므로
상관을 만났으나 정인을 유지하고 있다.

이참정의 사주는 경인년 을유월 갑자일 무진시이다.

갑목이 유금을 써서 정관인데 경금이 혼잡하고 을목으로 합을 하여 합살류관
이 되니 편관이 섞였으나 맑게 되었다.

辛 壬 辛 己
亥 寅 未 卯

—————

戊 甲 乙 庚
辰 子 酉 寅

3강 격국론II

至於官格透傷用印者 又忌見財 以財能去印 未能生官 而適以護傷故也
然亦有逢財而反大貴者 如範太傅命 丁丑 壬寅 己巳 丙寅 支具巳丑 會金傷官 丙丁解之
透壬豈非破格 卻不知丙丁並透 用一而足 以丁合壬而財去 以丙制傷而官清 無情而愈有情
此正造化之妙 變幻無窮 焉得不貴

정관격에 상관이 투출하고 정인을 쓰는 경우에는 재성을 꺼려 하니 재성이 인성을 없앨 수 있고
관성을 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관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재성이 있어도 오히려 크게 귀한 경우가 있으니 범태부의 명조와 같은 경우이다.
정축년 임인월 기사일 병인시인데 지지에 사화 축토가 있고
반합하여 금국 상관이나 병정화로 이를 해소하니 임수가 투출하여 어찌 파격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오히려 병정화가 나란히 투출하여 하나만 써도 족함을 알지 못하니
정화와 임수가 합하여 재성을 없애고 병화로 상관을 제압하여 정관이 맑아졌으므로
무정한 것이 더욱 유정한 사주가 되었다.
이는 바로 조화의 묘이고 변화가 무궁하니 어찌 귀하지 않다고 하겠는가?

丙 己 壬 丁
寅 巳 寅 丑

3강 격국론II

正官用財 運喜印綬身旺之地 切忌食傷

若身旺而財輕官弱 即仍取財官運可也 正官佩印 運喜財鄉 傷食反吉

若官重身輕而佩印 則身旺為宜 不必財運也

正官帶傷食而用印制 運喜官旺印旺之鄉 財運切忌 若印綬疊出 財運亦無害矣

정관격이 재성을 쓰면 정인운과 신왕한 운을 기뻐하고 식상운을 꺼린다.

만약 신왕한데 재성은 가볍고 관성이 약하면 재성 관성운을 계속 취해도 가하다.

정관격이 정인을 차고 있으면 재성운을 기뻐하고 상관 식신은 오히려 길하다.

만약 관성이 거듭되고 본신이 가벼운데 정인을 차고 있으면 본신이 왕성해야 하고 재성운이 필요치는 않다.

정관격에 상관 식신이 있는데 정인을 써서 제압하면

관성과 인성운이 왕성해지는 것을 기뻐하고 재성운을 꺼린다.

만약 정인이 중첩되면 재운도 해가 없을 것이다.

正官而帶煞 傷食反為不礙 其命中用劫合煞 則財運可行 傷食可行 身旺 印綬亦可行 只不過複露七煞
若命用傷官合煞 則傷食與財俱可行 而不宜逢印矣 此皆大略言之 其八字各有議論
運中每遇一字 各有研究 隨時取用 不可言形 凡格皆然 不獨正官也

정관격에 편관을 두르면 식상운이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는다.
원국에서 겁재를 써서 편관과 합하면 재성운도 가하고 식상운도 가하며
신왕하면 정인운도 가한데 다만 다시 칠살을 드러나지 않게 한다.
만약 상관을 써서 편관을 합하면 식상과 재성이 모두 가하지만 인성은 마땅하지 않다.
이는 모두 대략적으로 말한 것이고 팔자마다 다른 논의가 있다.
운에서 어떤 글자를 만날 때는 각기 연구하고 때에 따라 취하여 쓰며 형식을 말해서는 안된다.
모든 격이 그러하니 정관격만 그런 것이 아니다.

〈子平眞詮〉 論財及取運

財為我克 使用之物也 以能生官 所以為美

為財帛 為妻妾 為才能 為驛馬 皆財類也 財喜根深 不宜太露 然透一位以清用 格所最喜

不為之露 即非月令用神 若寅透乙 卯透甲之類 一亦不為過 太多則露矣 然而財旺生官 露亦不忌 蓋露不忌 蓋露以防劫 生官則劫退 譬如府庫錢糧 有官守護 即使露白 誰敢劫之 如葛參政命 壬申 壬子 戊午 乙卯 豈非財露 唯其生官 所以不忌也 財格之貴局不一 有財旺生官者 身強而不透傷官 不混七煞 貴格也

재성은 내가 극하는 것이고 사용하는 물건이며, 관성을 생할 수 있으므로 아름답다.

재물이고 처첩이며 재능이고 역마이니 모두가 재성의 종류이다.

재성은 뿌리가 깊은 것을 기뻐하고 지나치게 드러나면 좋지 않으나

한 자리에 투출하여 맑게 쓰이면 격에서 가장 기뻐하니 드러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곧 월령용신이 아니라도 예컨대 인목에 을목이 투출하고

묘목에 갑목이 투출하는 경우는 한가지라도 지나치지 않고 몹시 많은 경우에 곧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재성이 왕성하여 관성을 생하는 경우는 드러나도 꺼리지 않으니

대개 드러나도 꺼리지 않는다는 것은 드러나서 겁재를 방지하고, 관성을 생한 즉 겁재를 물리치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창고의 돈과 양식을 관리가 지키고 있는데 가사 모두 드러난다고 해서 누가 감히 겁탈하겠는가?

예를 들어 갈참정의 사주는 임신년 임자월 무오일 을묘시인데 어찌 재성이 드러나지 않았겠는가?

오직 관성을 생하므로 꺼려하지 않는 것이다. 재력의 귀한 국은 한가지가 아니며

왕성한 재성이 관성을 생하고 신강하면서 상관이 투출하지 않고 편관이 섞이지 않으면 귀격이다.

乙 戊 壬 壬
卯 午 子 申

有財用食生者 身強而不露官 略帶一位比劫 益覺有情
如壬寅 壬寅 庚辰 辛巳 楊待郎之命是也 透官身弱 則格壞矣

재격이 식신을 써서 생하는 경우는 신강하고
관성이 드러나지 않은 채로 하나의 비겁만 있으면 더욱 유정하다.
예컨대 ‘임인년 임인월 경진일 신사시’인 양시량의 명조가 그것이다.
관성이 투출하고 신약하면 격은 무너질 것이다.

辛 庚 壬 壬
巳 辰 寅 寅

3강 격국론II

有財格佩印者 蓋孤財不貴 佩印幫身 即印取貴 如乙未 甲申 丙申
庚寅 曾參政之命是也 然財印宜相並 如乙未 己卯 庚寅 辛巳
乙與己兩不相能 即有好處 小富而已

재격이 정인을 차고 있는 경우는 대개 재성이 외로우면 귀하지 않고
그 인성이 본신을 도와야 정인으로 귀할 수 있다.
예컨대 을미년 갑신월 병신일 경인시는 증참정의 명조이다.
그러나 재성과 정인은 마땅히 나란히 있어야 한다.
을미년 기묘월 경인일 신사시의 경우는 을목과 기토 둘이 서로
역할을 못하니 좋은 점이 있음에도 작은 부자에 불과할 따름이다.

庚 丙 甲 乙
寅 申 申 未

辛 庚 己 乙
巳 寅 卯 未

3강 격국론II

有用食而兼用印者 食與印兩不相礙 或有暗官而去食護官 皆貴格也 如吳榜眼命
庚戌 戊子 戊子 丙辰 庚與丙隔兩戊而不相克 是食與印不相礙也 如平江伯命
壬辰 乙巳 癸巳 辛酉 雖食印相克 而欲存巳戌官 是去食護官也 反是則減福矣

식신을 쓰면서 인성을 겸하여 쓰는 경우는 식신과 인성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거나 혹은 암관이 있어서 식신을 없애고 관성을 보호하면 모두 귀격이다.

오방안의 명조는 경술년 무자월 무자일 병진시 인데 경금과 병화가
두 무토를 격하여 서로 극하지 않으니 식신과 인성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평강백의 명조는 임진년 을사월 계사일 신유시 인데 비록 식신과 인성이 서로
극하지만 사화 중의 무토 정관이 식신을 없애고 관성을 보호하고 있다.
오히려 이 경우는 복이 줄어들었다.

丙 戊 戊 庚
辰 子 子 戌

辛 癸 乙 壬
酉 巳 巳 辰

3강 격국론II

有財用傷官者 財不甚旺而比強 略露一位傷官以化之 如甲子 辛未 辛酉 壬辰
甲透未庫 逢辛為劫 壬以化劫生財 汪學士命是也 財旺無劫而透傷 反為不利
蓋傷官本非美物 財輕透劫 不得已而用之 旺而露傷 何苦用彼
徒使財遇傷而死生官之具 安望富貴乎

재격에 상관을 쓰는 경우에 재성이 왕성하지 않고 비겁이 강하면 하나의 상관을 드러내어 설기한다. 예컨대 갑자년 신미월 신유일 임진시는 갑목이 미토 고지에 투출하고 신금을 만나 겁재가 되고 임수가 겁재로써 재성을 생하니 왕학사의 명조이다. 재성이 왕성하고 겁재가 없으나 상관이 투출하니 오히려 이롭지 않다. 대개 상관은 본래 좋은 것이 아니지만 재성이 가볍고 겁재가 투출하면 부득이하게 이를 쓴다. 재성이 왕성하나 상관이 드러나면 무슨 고생을 하려고 상관을 쓰겠는가? 공연히 재성을 상관과 만나게 하여 관성을 생하는 도구를 죽이면서 어떻게 부귀를 바란다는 것인가?

壬 辛 辛 甲
辰 酉 未 子

有財帶七煞者 或合煞存財 或制煞生財 皆貴格也

如毛狀元命 乙酉 庚辰 甲午 戊辰 合煞存財也

李御史命 庚辰 戊子 戊寅 甲寅 制煞生財也

재격이 편관을 두르고 있는 경우에는 편관과 합하여 재성을 보존하거나 혹은 편관을 제압하여 재성을 생하거나 모두가 귀격이다.

모장원의 명조는 을유년 경진월 갑오일 무진시로

편관과 합하여 재성을 보존한 것이다.

이어사의 명조는 경진년 무자월 무인일 갑인시로

편관을 제압하고 재성을 생한 것이다.

戊 甲 庚 乙
辰 午 辰 酉

甲 戊 戊 庚
寅 寅 子 辰

3강 격국론II

有財用煞印者 黨煞為忌 印以化之 格成富局 若冬土逢之亦貴格
如趙侍郎命 乙丑 丁亥 乙亥 化煞而即以解凍 又不露財以雜其印
所以貴也 若財用煞印而印獨 財煞並透 非特不貴 亦不富也

재격이 편관과 인성을 쓰는 경우에는 편관이 무리를 짓는 것을 꺼려 하고
인성으로 이를 화하면 격은 부유한 국이 되니
만약 겨울 토를 만나도 역시 귀격이다.

조시랑의 명조는 을축년 정해월 기사일 을해시인데 편관을 화하여 언 것을
해소하고 또 재성이 드러나 그 인성과 섞이지 않으니 귀하게 되었다.
만약 재격에서 편관과 정인을 쓰는 데 정인이 하나뿐이면 재성과 편관이 나란히
투출하여 특별히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역시나 크게 부유하지는 않다.

乙 己 丁 乙
亥 巳 亥 丑

3강 격국론II

至於壬生午月 癸生巳月 單透財而亦貴 又月令有暗官也 如丙寅 癸巳 癸未 壬戌
林尚書命是也 又壬生巳月 單透財而亦貴 以其透丙藏戊 棄煞就財
美者存在憎者棄也 如丙辰 癸巳 壬戌 壬寅 王太僕命是也 至於劫刃太重
棄財就煞 如一尚書命 丙辰 丙申 丙午 壬辰 此變之又變者也

임수일주가 오월에 태어나고 계수일주가 사월에 태어난 경우는
재성이 하나만 투출해도 역시 귀하고 또 월령에 숨은 관성이 있다.
예컨대 병인년 계사월 계미월 임술시는 임상서의 명조이다.
또 임수일주가 사월에 태어나고 재성이 홀로 투출해도 역시 귀하니
병화를 투출하고 무토를 감추며 편관을 버리고 재성을 취하였으므로
좋은 것은 보존하고 싫은 것은 버린 것이다.

병진년 계사월 임술월 임인시인 왕태복의 명조가 그것이다.
겁재와 양인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재성을 버리고 편관을 쓴다.

어느 상서의 명조는 병진년 병신월 병오일 임진시인데 변화가 무궁한 명조라고 하겠다.

壬 癸 癸 丙
戌 未 巳 寅

壬 壬 壬 癸
寅 戌 巳 辰

壬 丙 丙 丙
辰 午 申 辰

財格取運 即以財格所就之局 分而配之 其財旺生官者 運喜身旺印綬 不利七煞傷官
若生官而後透印 傷官之地 不甚有害
至於生官而帶食破局 則運喜印綬 而逢煞反吉矣

재격에서 운을 취할 때는 재격이 된 국을 나누어 짝지운다.
재성이 왕성하고 관성을 생하는 경우에는 신왕한 운과 정인운을 기뻐하고
편관운과 상관운은 불리하다.
만약 관성을 생하나 뒤에 인성이 투출하면 상관이 심하게 해롭지는 않다.
관성을 생하나 식신을 두르고 파격이 되면 정인운을 기뻐하지만
편관운을 만나면 오히려 길하다.

財用食生 財食重而身輕 則喜助身 財食輕而身重 則仍行財食
煞運不忌 官印反晦矣 財格佩印 運喜官鄉 身弱逢之 最喜印旺

재격이 식신을 써서 생하는데

재성과 식신이 무겁고 본신이 가벼우면 본신을 돕는 것을 기뻐한다.
재성과 식신이 가볍고 본신이 무거우면 여전히 재성운과 식신운이 좋다.
편관운을 꺼리지 않으나 관성운과 인성운은 오히려 어둡다.
재격이 정인을 차고 있으면 관성운을 기뻐하고 신약한데
이를 만나면 인성운과 신왕한 운을 가장 기뻐한다.

財用食印 財輕則喜財食 身輕則喜比印 官運有礙 煞反不忌也

財帶傷官 財運則亨 煞運不利 運行官印 未見其美矣 財帶七煞

不論合煞制煞 運喜食傷身旺之方 財用煞印 印旺最宜 逢財必忌 傷食之方 亦任意矣

재격이 식신과 인성을 쓰는 경우에는 재성이 가벼우면 재성운과 식신운을 기뻐하고
본신이 가벼우면 비견운과 정인운을 기뻐하며 정관운이 장애가 있으면 편관운을 오히려 꺼리지 않는다.

재격에 상관을 두르고 있으면 재성운에 형통하고 편관운에는 불리하며

운이 관성운과 인성운으로 가는데 좋은 경우를 아직 보지 못하였다.

재격이 편관을 두르고 있으면 편관을 합하거나 제압하는 것을 불문하고 식상운과 신왕한 운을 기뻐한다.

재격에 편관과 인성을 쓰는 경우에는 왕성한 정인운이 가장 좋고 재성운을 반드시 꺼린다.

식상운은 역시 상황에 따른다.